서경방송 특별대담 인터뷰

(2023. 4. 7.(금) 15:00)

#특별대담 오프닝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월 국민의힘 대선 경남선대위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항공우주기술
연구와 개발,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까지 담당하는
항공우주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지로
경남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3월 3일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이번에는 우주항공의 중심지인 KAI가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지금, 이 항공우주청, 아니 우주항공청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곧 상정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사천 우주항공청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특별대담에서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1. 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인용하기도 했지만, 당시 윤 후보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지역에서 상당히 반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담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셨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감격해 하셨습니다.

특히, 서부경남지역은 지금껏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천과 인근 지자체는 오랜기간 동안 우주항공분야에서 묵묵히 성장해오고 있었지만, 지역의 인지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좋습니다. 그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사천이 우주항공청의 최적지로 꼽혔을까요?

예, 우리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즉 KAI를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국내 우주산업 중심인 경남에서도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던 2015년,
우리 사천시는 전국 최초로 우주항공 전담부서인 '우주항공과'를
설치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처럼 이미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천이야말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3.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뉴-스페이스 즉, 민간주도의 우주산업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올드-스페이스, 공적영역 위주로 우주산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뉴-스페이스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외국기업들과 달리 정부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민간의 힘이 결집된 경남 사천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성공적인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은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특성이 일치하는, 최초의 지방 공공기관 설립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적인 모델이자,
지방시대 개막의 상징이라는 명분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4.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자연스럽게 서부경남,
그리고 경남에도 영향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우주산업은 타 산업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기뻐하시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리호 발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업체만 300여 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자, 엔진, 토목까지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미국 나사에서는 달과 화성 탐사, 소행성 채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단순하게 우주기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개발에 관련되는 업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경제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모든 산업영역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5.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어떤 조직입니까?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주항공 관련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지만,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특별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임기제 공무원 수 제한 해제, 보수상한 해제,
연구성과 보상 등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르게
유능한 인재 영입과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혜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직과 예산에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갖는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과감한 내용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 사천시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 정부의 특별법을 보면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띄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와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와 자율화가 담긴 혁신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에 유연한 조직과 관련된 사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와 지역갈등으로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인 우주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법과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에 대한 아쉬움은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이후에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7. 그런데,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것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조직의 경우 법률에 설립지역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포함된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고, 120대 국정과제에 우리 사천을 설립지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설립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것과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설립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만 크게 부풀려서 여론을 조장하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멘트

여러분은 SCS특별대담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천 우주항공청에 대해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8. 우주항공청의 입지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정황을 봤을 때는 대전에서 말이 많은데
“과기정통부와 가깝다”,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 등
우주 관련 시설이 대전에 모여 있다. 그러니 우주항공청은
대전이 최적지다” 이런 논리를 계속 내면서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전에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이끌어왔던
뛰어난 연구기관들이 소재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주개발의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주항공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연구기관들의 주된 역할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우주 연구를 하는 것이고,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민간주도의 우주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해 나가는 공생의 관계는 맞지만,
서로 추구하는 길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위성개발, 발사체개발 등의 개발분야를
연구기관이 수행해서는 절대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나, 수익창출이 어려운 사업들은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발 앞서서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방금 질문과 비슷한 맥락인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최근 산학연관 우주 전문가
100명을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67%가 대전을 꼽았고,
사천은 불과 8%에 불과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조성되면
관련된 고급 인력들이 과연 내려오겠느냐
이런 논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은 우주항공청을 반대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관련 전문가들의 지역선호도 조사가
마치 전문가들의 입지에 대한 전문적 의견인 것으로
둔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 세종시와 비교하면 정주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닐까요?

예, 정주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
세종시와 비교하면 현재 사천의 정주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방근무가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박완수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성공하기 위해 세종시처럼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잘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새로운 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시와 함께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부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들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1. 얼마 전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단장이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사천 외의 다른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신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천지역외에 다른 지역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번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칫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이 오랜 우주항공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우주항공청 설치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국익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우주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 현재 발의된 정부법안을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적기에 보완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사천시와 경남도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까요?

예, 우리 사천시는 미래 우주항공도시로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경남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거점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경남도와 힘을 합쳐 우주항공청과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주거와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이 완비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3.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경남도가
원팀이 되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직원은 물론이고,
나아가 산업체와 관계기관 직원, 그리고 시민들까지
우주항공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는 세종에 행정복합도시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의 의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비전으로 경남도와 함께
'미래 우주항공도시'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시설에 대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 또한 기관의 역할, 직원들의 수요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시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항공청이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한 후보지 자료와 추후에 필요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지 확정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5. 사천이 진정한 우주항공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우주항공청 설립 확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으로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우주항공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발전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 기본구상, 행정복합타운 조성 방안과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주 직원 및 기관지원에 관한 시책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16.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항공청 조직이 현실에 맞지 않다”, “청이 아닌 국 규모로 축소하고, 여기에 항공을 뺀 우주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같은 이야기 말이죠.
급기야 최근 정부가 추진하던 우주항공청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자는 이른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도 특별법과 별개로 발의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논점은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이기 때문에 조정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고, 그렇기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본부장을 임명하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직위가 높다하여 업무 조정이 원활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권한과 역량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의 조정능력은, 두 법안 모두에서 추진하듯이,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충분히 확보할수 있습니다.

장관급으로 격상 시킨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조직은 위원회의 산하에 불과합니다. 규모는 축소될 것이고 우주항공 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뉴-스페이스의 문턱을 넘기에는 너무나 미약할 것입니다.

두 법안을 비교해보았을 때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우주산업에 대한 철학과,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다름이없고, 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대립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우주항공 전담조직 개청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우주경쟁에서 뒤쳐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미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17.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국회를 향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원안 의결에 동의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도 많죠?

예, 학계, 산업계 전문가와 경남도민, 사천시민께서 한 목소리와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는 대전의 일부 의원들이 일부에서 정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우주전담조직이 없었던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한 목소리와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우주전문가들로부터 우주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공감대 형성 실패로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 KF-21 시험비행 성공 등 우주항공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면서,

지금은 전 국민께서 우주전담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계시며,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여야와 지역을 떠나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8. 자,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정당과 지역을 떠나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시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라 국회 의결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개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과방위의 법안 통과가 첫관문입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우주항공청 설치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주항공청이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연내에 개청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경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묵묵히 성장,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주항공 전담조직이 설립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향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 멘트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사천과 서부경남의 핵심 사업인
우주항공청 개청. 오늘은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사천 우주항공청 추진 현황과 과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시장님 인사)

네, 이슈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눠보는 SCS특별대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